

慶北北部地方 傳統民家の 住文化圈

徐京泰

(釜山女子大學校 建築學科 教授)

曹成基

(釜山大學校 建築工學科 教授, 工學博士)

1. 서론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는 행위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단적인 창작 행위로 일정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된다면, 이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고찰의 관점은 총체적인 문화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고 조화된 하나의 유기체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여건이 변화하면 사람들의 이념과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문화적 특성도 다르게 생성되고 발전된다. 주거 문화 또한 그 고장 특유의 환경에 따라 오랜 세월을 걸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유와 관습이 축적되고 고유의 성격과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주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내의 주문화권은 험한 산맥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구분되고 있고, 고장마다 일정한 민가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수의 유형이 공존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경북 북부 지방은 한반도 내에서도 특히 고유의 주문화적 특성을 다양하게 간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태백 산맥

과 소백 산맥을 경계로 중부 지방과 영동 지방 등과는 자연스럽게 일정한 문화적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지맥들이 형성한 골짜기마다 보존되어 온 전통 주거의 유구들은 어느 지역보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마을들과 함께 수많은 상류 주거와 민가의 다양한 주거형들이 채집되고 분석되어졌다.

그러나 종래의 한반도 내의 전통 주거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유구의 채집에 열중하거나 일정 지역에 대한 집중 조명으로 그 고장 고유의 주거형의 특성 규명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¹⁾ 돌이켜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된 만큼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간의 상호 비교와 관련성의 추구 등 보다 총체적인 시각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문화권이 인접할 때, 양자 사이에는 중간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중간

1) 지금까지 평면에서 어떤 지역성을 이론화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적인 차이 내지 기후권 보다는 문화권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田鳳熙, 朝鮮時代 氏族마을의 內在的 秩序와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p.205. 1992.

지역에는 두 문화 요소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의 중간형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거나 교류함으로써 주고받는 영향은 대소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독특한 결과를 낳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화권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가형의 지리적 분포와 주문화적 특성이 밝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간 지역 내지 중첩 지역의 존재와 특성이 다음 단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와 필자가 채집한 자료를 취합하여 경북 북부 지방에 분포된 각 민가형의 지역별 특징과 분포권역을 고찰하도록 한다.

2. 民家型 分布 基準의 設定

어떠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그 요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작업은 객관성 있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분포된 민가형은 각 주문화권마다 특색을 달리 하지만 분명히 원형적인 모형(母型)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주거는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원초적인 수준의 피난처라는 개념에서 출발함은 분명하다. 한국민가에서 온돌구조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주거형을 상정해 보면, 침실의 확보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마루구조의 채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오막살이형」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가형의 원형적인 모형은 몸채의 구성요소가 온돌위주로 되어 있는 홑집 오막살이형이라 할 수 있다.²⁾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기술과 경제력의 확보에 의해 수용되는 마루구조

는 그 위치와 용도 등이 지역별로 특징적인 민가 요소로서 등장하며, 겹집구조 또한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민가형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1자형의 찻집에서 마루를 중앙에 수용하는 영남형과 남동해안형,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간 7자형의 중부형 등은 모두 각 지방의 전통과 기술이 복합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분포하고 있는 민가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³⁾ 포괄적으로 인식되어 온 유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경북북부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민가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많은 민가에서 집의 규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정면 칸수를 우선하고⁴⁾ 있다는 점에서 정면칸수를 그 규모발전의 기본적인 잣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기본형을 바탕으로 앞뒤로 퇴가 덧붙거나 좌우로 방이나 수장공간이 덧붙는 형태 또는 횡분할과정의 형태는 같은 계열로 분류가 가능하다. 나아가 「오막살이형」이나 「영남형」을 막론하고 이들 유형의 횡분할형태에서 더욱 발전된 복열향의 주거에서는 모퇴까지 발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기본형을 바탕으로 파악하면 쉬 이해되며 불필요한 혼돈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지역에서 하나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일정한 폭의 변용양상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군집하는 유형을 「일반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일정지역에서 군집하는 일반형이 아닌 특이한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유형을 「특수형」이라 지칭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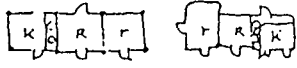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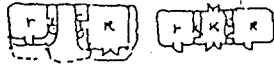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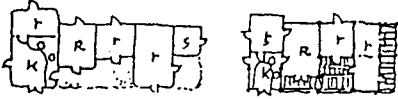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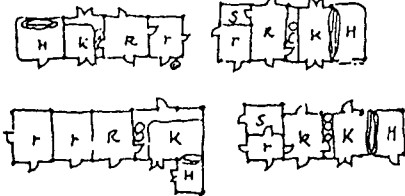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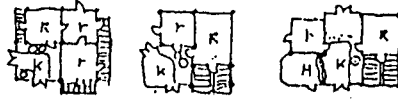
이러한 유형분류의 기준위에 어떤 민가의 일반형이 지배적이고 우세하게 분포하는 일정한 범위를 그 유형의 주문화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막살이집은 지역적인 민가형의 발전과정 이전의 모형적인 가옥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가형이 지역에 따라 형성, 분포하게 된 것이다. 曹成基, 韓國 中部型民家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7권3호, p82. 1991.

3) 예를 들어 “중부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7자형태의 독특한 형태로 부엌-안방의 배열축과 대청-건너방의 배열축이 서로 직교하게 배열되는 것을 기본형(基本型)으로 하고 있다” 曹成基, 앞글, p82.

4) 안동지역 주민들과 목수는 여칸집을 ‘삼칸겹집’이라고도 한다.

표 1. 경북북부지방의 오막살이형 민가

변화 구분	평면 사례	소재 지역 *
기본형 (삼칸홀집)		상주군 외서면 우산리 손윤홍 /24-140 안동군 임하면 사의동 김옥분 /15-88
도투말이		봉화군 법전면 풍정1리 장기환 /3-230 안동군 풍산읍 서미동 한성운 안동군 풍산면 서미동 강재수
네칸홀집		안동군 길안면 용계리 박상모 /15-94 봉화군 물야면 오전2리 이교환 /23-부록
전면퇴칸 발생		봉화군 소천면 석포1리 유경하 /3-226 상주군 외서면 우산리 김충식 /24-144 문경군 마성면 외이2리 권명흠 /23-부록
세칸복열화		상주군 사벌면 화달리 이대회 /5-132 상주군 모서면 대포리 이완희 /23-부록 상주군 청리면 율로리 정씨 /20-82
네칸복열화		안동군 풍천면 도양동 조현태 풍기읍 백동1동 김성국 /3-217
외양간수용 (홀집)		안동군 임동면 지례1동 김억식 /15-109 영풍군 부석면 북지리 박씨 /20-83 봉화군 봉성면 원둔리 박씨 /20-83 영덕군 영해면 대2동 원병상 /23-부록
특수형		안동군 도산면 하계 이훈 /17-5 안동군 풍산읍 서미동 임영섭 안동군 풍산읍 서미동 강재수

* 숫자는 출처를 나타냄.(예: 17-5는 참고문헌 17의 5쪽에서 인용) 이하 동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많은 민가 연구가 그 유구의 채집에 열중하여 그 분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상당한 혼동을 간직해 온 것이 사실이다.⁵⁾ 상기의 관점과 기준은 경북

북부지방에 형성된 각 남가형의 주민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5) 예를 들어 하회마을의 주거유형에 대한 분류가 수차 수행 되었지만 너무 세분되기도 하고 (金東仁,1982), 칸수와 외곽형상 그리고 홀결집이 동일

한 분류기준으로 설정되기도 하였으며(曹貞植,1990)오막살이형과 영남형을 4칸초가로 묶어 구분이 없는 (文化財管理局,1989)등 민가형의 분류에 일정한 기준의 설정이 모두 아쉬웠다.

표 2. 경북북부지방의 영남형 민가

변화 구분	평면 사례	소재 지역 *
기본형 (네칸홀집)		상주군 모서면 대포리 김봉길 /23-부록 안동군 임동면 지례동 김씨 /15-11
복열화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김씨 /20-83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박억만 /23-부록 안동군 풍천면 단호1동 권점환 안동군 도산면 섬마을 10 /16-69 상주군 청리면 덕산리 이씨 /20-80
외양간 수용		안동군 임하면 임하동 김희대 /3-194 영풍군 문수면 수도리 박찬유 /12-63

3. 地域別 民家型 特徵과 分布圈

지금까지 조사보고 된 문형과 필자의 답사를 통해 채집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경북북부지방에는 오막살이형, 영남형, 여칸형, 북부형, 중부형 그리고 남동해안형 등의 매우 다양한 민가형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각 민가형의 특징과 분포지역을 고찰하도록 한다.

3.1. 오막살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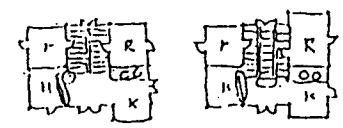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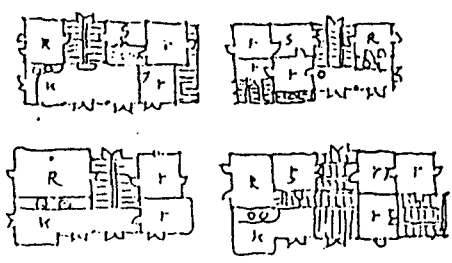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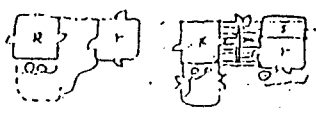
한반도 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오막살

이형」은 부엌과 온돌방 만으로 된 최소한의 구성이 기본형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도 부엌-온돌방 혹은 여기에 온돌방 하나가 덧 붙여지는 一자형이 일반형으로서 분포하고 있는데, 부엌과 침실만으로 구성된 기본형을 바탕으로 작은 퇴를 확보하는 양상은 지역의 구분없이 나타나고 있다. 상주, 안동, 의성, 선산이남 지역 등에서는 복열화현상과 함께 쪽마루의 수용이 특징인 반면, 영풍, 봉화 그리고 안동 산간지방에서는 소위 관리 때문에 마루가 몸채안에 수용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수한 평면으로는 영동지방의 겹집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평면이 일부 채집되어 왔다. (표.1. 특수형 참조) 부엌이 중앙에 위치하여 양쪽으로 있어 온돌방의 열관리가 용이하도록 도투말이집과 달리 이 유형은 부엌이 중앙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부엌과 온돌방이 융축되어 田자를 이룬다. 침실군의 아궁이를 집중관리하는 점에서는 도투말이집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방향으로 발전하는 예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홀집인 도투말이집에서의 도리 방향의 발전보다는 겹집구

6) 한반도 남부지방 민가형의 하나로 호남지방에 인접한 지역과 해로를 따라 경남해안을 거쳐 경북 영덕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남동해안에 대상(帶狀)으로 분포하고 있다. 정면을 강조하는 평면에서 중앙의 한청은 호남지방에서의 기능은 수장공간이나 거제도를 경계로 그 동쪽은 제청이나 생활공간으로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안청문이 널문에서 세살문으로 바뀌기도 한다. 曹成基, 韓國南部地方의 民家에 관한 研究, 영남대대학원 박사 논문, p.p.111~117. 1984

표 3. 경북북부지방의 영남형 민가

변화 구분	평면 사례	소재 지역 *
기본형		안동군 풍천면 단호2동 정봉출 안동군 임동면 지동 이갑수 /15-123
도리방향 확대발전		영풍군 이산면 석포1리 김태현/3-214 영풍군 문수면 수도리 박원서/12-39 안동군 풍천면 단호동 손희덕 영풍군 부석면 소천1리 김세기/3-219
미완형 (잔여칸)		안동군 일직면 조탑동 최용구/3-200 안동군 풍산읍 죽전동 악대 손한동

조인 이 유형에서의 도리방향 발전이 공간확보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인다.

상주지역에서는 보방향으로 발전하여 측면쪽을 크게 함으로써 아예 겹집에 이른 경우가 많다. 표1의 전면 세칸 복열화에서의 예와 같이 부엌이나 안방 뒤쪽으로 수장공간을 확보하고, 전면중앙이 아닌 모서리칸에 마루칸을 두면서 바깥 측면벽으로 빈약한 두 짝의 빈지문을 달고 있는 집들이 채집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국지적으로 공간 분할 현상이 특출한 예이다.

문경지역에서 오막살이의 일반형은 선산이남과 마찬가지로 안방앞에 영성한 들마루를 두는 경우가 많고 수장공간을 건너방 뒤로 확보하고 있다.⁷⁾

안동, 영풍, 봉화지역에서 오막살이형이 도리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정지쪽으로 뒤주, 고방 등의 부속공간이 발달하는데, 특히 산간에서는 마구가 정지옆에 덧붙은 형태가 일반형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채집된 대표적인 오막살이형 민가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3.2. 영남형

「영남형」은 민가의 평면이 부엌-온돌방-마루-온돌방의 一자형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의 마루는 전면을 개방하고 후면은 빈지의 양여달이 창을 두는 것이 기본형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 분포지역은 대체로 영동지방과 안동 이남지역으로 파악된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영남형은 상주, 의성, 문경, 예천 등의 지역에서 기본형을 지키며 주된 분포 권역을 이루고 있다.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건너방과 부엌보다는 안방과 마루에서 도리방향의 발전으로 정면성이 강조된다.

남쪽의 선산, 군위지역은 영남형이 기본형을 지키고 있는 편이다. 퇴간, 쪽마루가 없고 마루 대신 흙으로 마감된 봉당을 두는 경우도 많지만,⁸⁾ 대개 모되나 작은방 앞퇴가 발달한 유형이

7) 崔英植, 傳統韓國庶民住宅의 平面類型에 대한 考察,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p.27, 1976

일반적이며 상주, 문경지역보다 흙집 계열이 우세하다.

상주, 예천, 문경지역은 기본형을 지키면서도 퇴를 포함한 마루구조가 유난히 발달한 고장이다. 퇴의 발달과 함께 부엌과 침실 뒤쪽으로 퇴간을 확보하여 고방이 많이 나타나는 등 복열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칸반집이 일반형으로 파악된다. (표.2 참조)

안동, 영풍, 봉화지역에서 영남형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영남형을 기본으로 한 복열화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마루의 전면에 문을 달거나 건너방 부분이 田자형 침실군을 이루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경북북부지방의 다양한 주문화권의 분포, 즉 남동해안형이나 영동지방에 남하한 북부형 등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흥미로운 부분이다.

복열화형상은 의성, 안동, 예천, 상주 등지에서 고루 나타나고, 봉화, 영풍, 등지에서는 아예 겹집이 된경우가 많이 채집된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채집된 대표적인 영남형 민가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3.3. 여칸형

「여칸형」은 일명 ‘까치구멍집’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⁹⁾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삼척산간지역에도 일부 분포하고 있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전면으로 삼 칸, 측면으로는 겹집이나 무엇보다도 정면중앙에 ‘대문’이라는 두짝 빈지문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흙바닥의 봉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부엌과 외양간을 두는 형태가 기본형이다.

여칸형은 산간에서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까치구멍을 만드는 합각지붕 아래 한정된 평면이므로 앞뒤로 처마선내에서 퇴를 물리는 것이 일반형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여칸형은 문경군, 상주군, 남쪽으로 의성군 그리고 동쪽으로 영양군에서도 분포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고, 다만 예천군, 청송군과 영덕군 창수면에 소수나마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안동지역에서 일월산맥을 쉬넘지 못하면서 임하방면의 계곡을 따라 청송을 거쳐 영덕지역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봉화군에서는 산곡간인 소천면, 재산면에서 채집되고 영풍군에서도 서쪽인 상운면, 이산면, 문수면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안동군에서도 낙동강 상류지역인 와룡면, 예안면 그리고 풍산읍 북쪽과 서후면 등지의 산간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칸형의 분포지역은 안동군을 중심으로 서로는 하회와 학가산 그리고 영풍군 문수면이고, 동으로는 일월산을 넘지 못한다. 북으로는 봉화군 산간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낙동강변에 닿지만 의성군에 이르는 못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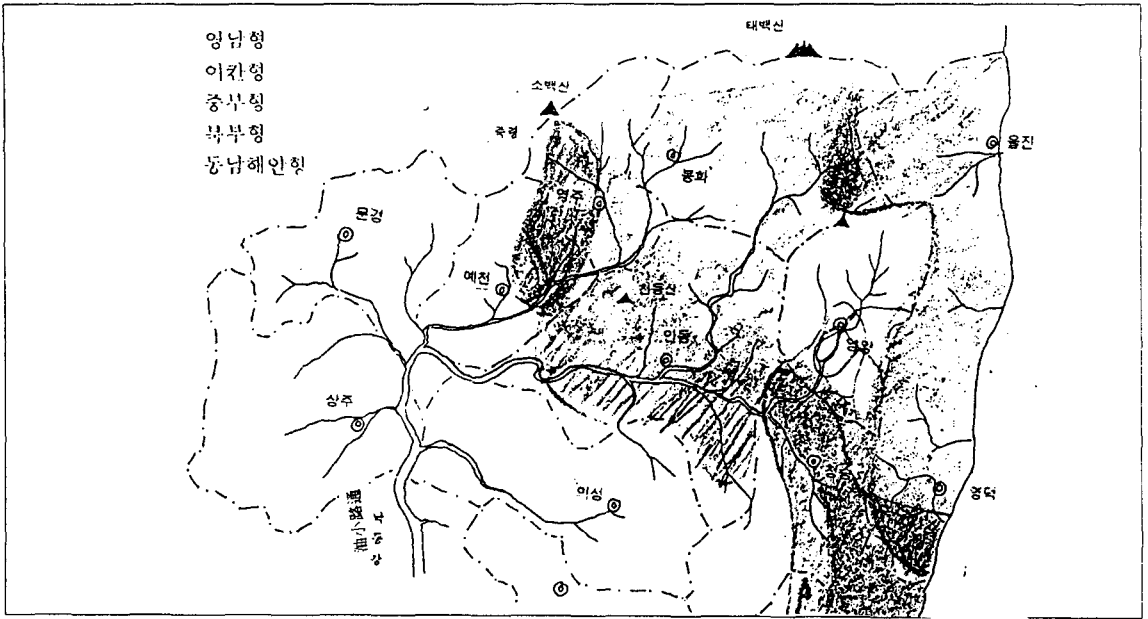
산간에 집중분포하는 여칸집은 흑한과 도둑 때문에 외양간을 몸채내에 수용하여 침실이 두 개 밖에 없지만 합각지붕이라 증축도 용이치 않으므로 침실의 확보시 대개 거릿채를 따로 짓는 경우가 많다. ‘사랑’으로도 불리우는 거릿채는 외양간 보다는 부엌과 연결되어 그 사이에 뒤안을 확보한다. 별도의 거릿채를 짓지 않고 처음부터 확대 발전시킨다면 대개 도리 방향으로 전개되는데,¹⁰⁾ 이는 후대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근세에 들어 외양간이 분리되거나 필요없는 경우 외양간의 위치에 온돌방이 대신하기도 하고 부엌 외벽의 빈지가 흙담으로 바뀌기도 한다. 특히 낙동강변에 이르러 하회마을에서는 흙담벽으로 축조되어 있으니 이는 경제력과 재목의 조달이 어려움을 말해준다.

여칸형은 주로 산간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띠는 반면 개활지에 이르면 그 분포도는 다소 낮아지며 개방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변에서 여칸집의 미완형이 다수 채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표.3에서 미완형의 경우와 같이 방과 방 사이에 흙봉당을 사이에 두고 안방 앞쪽으로 부엌을 덧대어 내미는 형태의 7 자형면을 갖추고 있다. 일부 주민

8) 慶尙北道,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III), p.108. 1986.

9) 金一鎮(1977,1979), 徐京泰(1986,1987), 金命福(1992) 등의 연구.

10) 강원도 삼척지역의 산간에서는 보방향으로 발전하는 예가 있다. 金一鎮(1979), 徐京泰(1986)



경북북부지방의 주문화권

과 목수는 몸채내에 외양간까지 반듯하게 갖춘 '옹은여칸'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집을 '잔여칸'이라 부른다. 또 하회마을의 여칸형 계열의 일부는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마루대신 흙바닥 그대로의 '흙마리'를 두고 있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채집된 대표적인 여칸형 민가를 정리해보면 표3과 같다.

3.4. 중부형

「중부형」은 부엌의 배열이 안방과의 축을 같이 하는 형남형과는 다르게 대청-건너방의 축과 안방-부엌의 축이 직교되게 설치되어 마루를 중앙에 두면서도 7자형을 갖춘 형태가 기본형이다.

중부형은 주로 소백산맥 이북의 중부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경북지방에서는 그리 쉽게 찾아볼수 있는 규형은 아니다. 경북지방에서 중부형은 의성군, 상주군 뿐만아니라 북쪽의 문경군에서조차도 보기가 어려우며, 봉화군, 영양군 등지에서도 역시 쉬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영풍지역의 풍기읍과 문수면, 예천지역의 풍양면, 용문면 등지에서 중부형은 다수 채집된다. 이고장에서 중부형은 그 특이한 형태로 인

해 '꼬굴레집'이라고 불리운다.

꼬굴레집에서는 원래의 기본형에다가 부엌쪽이 이어 외양간을 수용하거나 상방부분은 도리방향으로 크게하여 마루쪽의 일부분을 뒤주로 쓰는 경우가 일반형이다. 이렇게 민가의 평면이 웅축하거나 동선이 집중화되는 현상은 추운 고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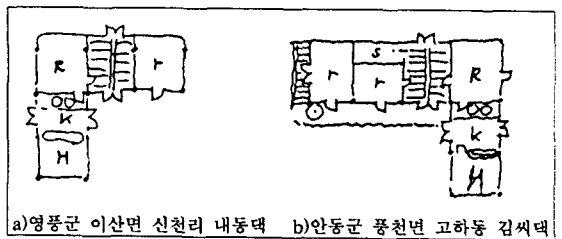


그림 1. 중부형 민가의 예

안동지역에서는 임동면, 일직면과 청송군 짐보면 등지에서 소수 채집되어 왔으며, 하회, 의인, 괴시 등지의 유명방촌에도 있다고 보고 되었다.¹¹⁾ 그러나 이는 대개 일반 민촌이 아닌 반촌으로 집중분포하는 양상은 아니다. 또한 안동군 지내동¹²⁾

11) 曹成基, 嶺南地方의 中部型住宅,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p.9. 1995

과 영덕군 괴시동의 중부형은 최근의 것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중부형은 영남형, 여간형보다 세력이 미약하다. 이러한 중부형이 소백산맥에 연한 지역인 영풍군, 예천군에서 마구를 수용하는 모습의 중부형이 집중적으로 채집되었던 것은 이 고장에서 서울로 가는 통로가 문경쪽이 아닌 예천을 지나 상리를 거쳐 문경새재로 이르는 것이라는 증언과 일치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3.5. 북부형

「북부형」은 흑한지방인 함경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므로 「함경도형」이라고도 한다. 田자형 침실군과 정주간을 가지며 마루가 없는 겹집으로, 두 짝 바라지로 된 「대문」을 들어서면 봉당에 이어 부엌이 있고 몸채내에 외양간까지 두는 것이 기본형이다.

이러한 북부형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였는데 영동지방에 이르러서 정주간의 폭은 지극히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진다. 삼척내륙지역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부엌의 아궁이가 몸채의 측면길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¹³⁾ 보다 남쪽인 삼척, 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부엌의 아궁이가 침실군의 후면으로 물리면서 전면 한칸이 부엌 앞의 봉당과 연결되는 마루로 바뀌며 전면에 두 짝의 빈지문을 다는 것이 일반형이다.¹⁴⁾ 그러나 주출입구는 침실앞의 빈지문이 아니고 여전히 부엌앞의 두 짝 빈지문을 고수하고 있으며 옥내공간인 봉당은 계속 이 유형의 동선 결절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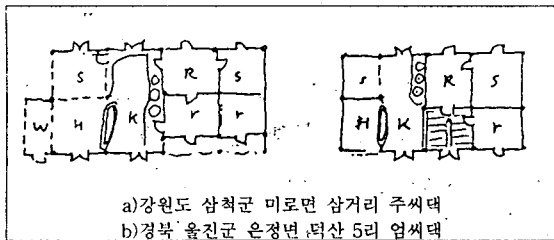


그림 2. 중부형 민가의 예

경북북부지방에서 북부형은 영동지방에 이르러 기본형에서 다소 변형되었다. 정주간이 소멸되고

12) 洪淳仁, 傳統마을의 形成과 民家形式에 관한 研究,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p.53, 1979

전면 침실 한 칸이 마루가 된 것이 일반형으로 정착되었으나 태백산맥을 쉬 넘지 못한다. 의성군에서는 물론 북으로 상주군, 문성군, 예천군, 영풍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태백산맥에 서쪽으로 닿은 내륙지방에서만 소수 채집되었다. 봉화군에서도 태백산맥쪽에 치우친 재산면 등지에서만 채집되었고 안동군에서도 녹전면, 임하면 등 산간지역에서 채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태백산맥 서쪽에서의 빈도는 지극히 낮은 편이다. 반면 태백산맥 동쪽인 울진군, 영덕군에서는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그 남방한계는 영덕군의 남단까지로 파악된다. 특히 울진지역에서는 日자형의 사랑공간을 田자로 증축고하여 정면 5칸의 집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3.6. 남동해안형

남동해안형은 부엌-온돌방-안창-온돌방으로 된 一자형의 집으로 정면 중앙의 마루 전면에 빈지문이나 세 살문을 다는 것이 기본형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의 남동해안형은 남쪽에서 남동해안선을 따라 북진하여 영천, 청송 등에 이르고 있는데, 내륙 산간지역의 민가형과 교섭내지 절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 참조)

영남형에서 정면 중앙에 자리하는 대청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에 반해, 남동해안형에서의 마루는 남해안지방에서는 수장공산이었으나 동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생활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간지역에서 전면에 빈지문을 시설한 폐쇄적인 마루는 문을 달지 않는 개방적인 마루에 비해 주거 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경북내륙지방까지 일부 분포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경북북부지방의 주문화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종래의 시각을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나름대로의 민가형 분류기준을

13) 徐京泰, 三陟地方의 民家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2호, p.8, 1986.4

14) 曹成基, 嶺東地方 民家の 조사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1호, pp.77-83, 19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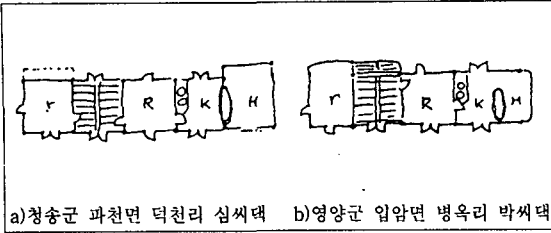


그림 3. 남동해안형 민가의 예

설정하고 경북북부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각 민가형의 지역별 특징과 분포권의 파악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막살이형은 최소한의 규모로 한반도 주거형태의 모형으로 상정되는 민가형으로 이고장에서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추운 산간지방이라는 배경 때문에 외양간을 수용하거나 한정된 몸채내에서 복열화하는 경우도 있다.

영남형은 군위, 의성, 상주, 문경, 예천 이남지역이 주된 분포지역이다. 경북북부지방에서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복열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영풍, 봉화지역으로 북진하면서 그 분포도는 극히 미약해진다.

2) 여간형은 안동군을 중심으로 봉화군의 동쪽, 서로 풍천면, 그리고 동쪽으로 임하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게되면 거릿채를 따로 두거나 몸채에 도리방향으로 전개된다.

3) 북부형, 중부형 그리고 남동해안형은 이 고장에서 영남형, 여간형보다 분포도가 낮은 편이나 대개 외양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형은 영풍, 예천지역에서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그외의 지역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분포도로 미루어 볼 때 죽령과 연결된다. 북부형은 침실한 칸이 마루로 바뀌는 등 다소 변형되어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해안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의 서쪽 자락에 그칠 뿐 더 이상 서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남동해안형은 영천, 청송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안동 등지에서는 드물게 채집되고 있다.

4) 이상의 경북북부지방 주문화권역의 성격을 대별하여 보면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즉 의성, 상주, 예천, 문경지역에서는 영남

형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안동, 영풍, 봉화, 청송지역 등에서는 여간형을 중심으로 소수의 영남형, 북부형, 동남해안형 그리고 울진, 영덕지역에서는 북부형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야를 낀 개활지에서는 개방성을 추운 산간에서는 폐쇄성을 보이는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각 주문화권의 형성에 따라 인접된 주문화권과 중첩되는 지역이 파악되었다. 즉 예천군 감천면 일대에서는 영남형과 중부형이, 안동군 풍천면 인근에서는 영남형과 여간형이 안동군 임하면 인근과 청송군 일부에는 남동해안형과 영남형 그리고 여간형이, 봉화군 재산면 일대에서는 여간형과 북부형이, 그리고 영덕군 남단에서는 북부형과 동남해안형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경북북부지방의 민가형들은 일정한 범위의 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각 민가형의 주문화권은 그림4와 같은 분포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벗어나 지역간의 상호비교와 관련성의 추구 등을 용이하게하여 주거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규명하는 작업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보다 많은 유구의 채집과 분석을 통해 중간지역 내지 중첩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姜榮煥, 三陟以南 東海岸地域 傳統民家에 관한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1989.
2. 慶尙北道,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 1980
3. 慶尙北道,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I), 1981
4. 慶尙北道,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II), 1986
5. 慶尙北道,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V), 1987
6. 慶尙北道, 河回마을 調査報告書(I), 1979
7. 金東仁, 河回마을을 중심으로한 庶民住宅의 特性에 관한 考察, 영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82.
8. 金命福, 江原道 南部와 慶北北部地域의 겹집에 관한 연구, 영남대대학원 박사논문, 1992.
9. 金一鎭, 가치구명집에 관한 考察, 대한건축학회지 21권 78호, 1977.
10. 金一鎭, 韓國民家のマル中心型ケヨブチブ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便覽集, 1979
11. 大邱大博物館, 義城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87.
12. 文化財管理局, 傳統建造物保存地區調査報告書(무섬), 1988
13. 文化財管理局, 安東河回마을 保存管理方案 調査研究報告書, 1989
14. 徐慶泰, 三陟地方의 民家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2호, 1986
15. 安東郡, 臨河댐 水沒地域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1986
16. 蔚山工大建築科, 의인섬마을, 1976
17. 張聖浚, 安東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1호, 1978
18. 曹成基, 嶺南地方의 中部型住宅, 한국건축역사학회학술발표회자료집, 1995.
19. 曹成基, 嶺東地方民家の 調査研究(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1호, 1987.
20. 曹成基, 韓國中部型 民家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 1991.
22. 曹貞植, 韓國傳統住宅における 空間と生活の對應に關する 研究, 東京大大學院 博士論文, 1991.
23. 崔英植, 傳統韓國庶民住宅의 平面類型에 관한 考察, 영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76.
24. 한샘, 農村住居環境 調査研究報告書, 1986.
25. 洪淳仁, 傳統마을의 形成과 民家形成에 관한 研究,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1979.

The Areal Distribution of the types of Folk Houses in Northern Kyung-Buk Province

Seo Kyung Tai, Cho Sung Ki

ABSTRACT

Accoring to many studies which concerned with the types of folk houses, there are many types of folk houses in Korean peninsula and its areal distribution had been determined by the barrier of mountains, in general. But we have neglected to examine the overlapped areal distribution still now. If two types of culture with different housing type contact at one region, it may interrelated each other and invent certain exclusive characteristics. And there are its own attitude of traditional culture in Kyung-buk provingce where serveral types of folk houses settled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general pattern of culture in terms of folk houses in northern Kyung-buk province and to suggest a clue to solve the cultural inter-relationship each other. By classification of the collected plans in this area, the authors try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eral types and there areal distribution.

Finally, we can find out that certain types of folk houses located in northern Kyung-buk province had formed their cultural regions and these homogeneous regions are overlapped, partly.